한국평생교육연합회, 광주평생학습도시 워크숍

(사)한국평생교육연합회는 지난 11일 광주시 동구 컬처호텔람에서 2025 미래를 위한 '광주평생학습도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광주 평생학습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이사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식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유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광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2025년 정기총회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2025년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활동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보육 발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임동진 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보육 현장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나눔 사진·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며 교직원들의 헌신과 나눔 사례가 소개됐다.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은 2009년 창립 후 아시아 저개발국 희망의 어린이집 건립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 취임

백학선(사진·55) 치안감이 제19대 서해지방해경청장에 취임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2일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이 새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백 신임 청장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정확히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해양경찰의 가장 기본이며 변치 않는 가치로 모든 정답은 현장에서 찾아 달라"을 주문했다.

백 청장은 경찰 간부후보 45기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97년 해양경찰에 입문해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속초해양경찰서장, 인천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김진수 광주일보 차장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 연임

한국사진기자협회광주·전남사진기자회는 제21대 회장에 김진수(사진·48) 광주일보 사진부 차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22년 제19대, 2024년 제20대 회장에 이어 이번 21대까지 3연임의 중책을 맡게 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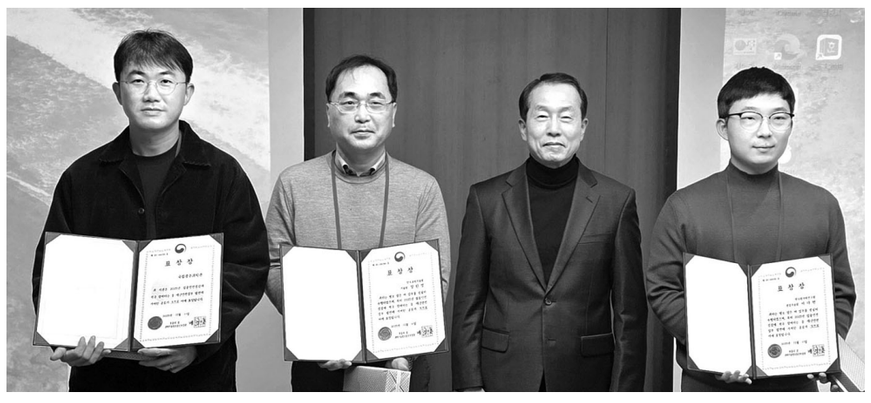
김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진기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회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역사의 기록자로서 보도사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취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4년 광남일보 사진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김 회장은 2010년 광주일보로 자리를 옮겨 사건·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사진기자회에는 광주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11개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 2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재난안전업무 과기부장관 표창



국립광주과학관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난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우수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특히 올해 5월 26일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한 점이 이번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평소 시설물 관리, 안전 취약 요인 개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무진기연, 광주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무진기연(대표이사 조성은)이 광주사랑의열매 고액 기업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23호로 가입했다. 〈사진〉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5년 이내 기부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참여하는 사랑의열매의 고액 기업기부 프로그램이다.

㈜무진기연은 원자력발전소 신규·운전 관련 기자재 제작·공급, 발전소 공사·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다년간 장학금 후원과 복지시설 지원, 지역 행사 후원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뉴스특보
10	00 KBS 뉴스특보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놓친예능 따라잡기(재) 4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45 팬티히어로2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쌍둥이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네모세모
2	00 KBS 뉴스 10 2025 승강제 리그 챔피언십 배드민턴 결승전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안녕! 틴틴팅클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00 생방송 투데이 50 닥터 365 55 시장이 좋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스페셜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35 시사터치! 따따부따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누난 내게 여자야	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50 남극의 셰프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인생이 영화(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모킹 건(재)		50 닥터 365
12	15 생활의 발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MBC 뉴스 25	00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키르기스스탄 -초원과 바람이 만든 인생〉
07:00 슈퍼윙스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50 시대를 걷는 미술관
09:20 자이언트 펭TV
09:40 PD로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6:30 한글용사 아이야(재)
17:00 페파 피그
17:10 메카 빌더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17:50 자이언트 펭TV(재)
18:10 EBS 뉴스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민국
19:50 최후의 인류
20:40 세계테마기행 〈살아 있네, 동남아 알짜 여행 -전설 따라 베트남 북부〉
21:35 한국기행 〈오늘도 나답게 삽니다 1부 산적 두목의 거침없는 질주〉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취미는 과학 여행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0월 25일 戊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니라. 48년생 거울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느니라. 60년생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만 성사될 것이다. 72년생 드디어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84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96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33, 68

丑 37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49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61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임하라. 73년생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8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97년생 대세가 기울었으니 집착을 버리자. 행운의 숫자 : 28, 50

寅 38년생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50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62년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74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86년생 음양의 조화가 이채롭다. 98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38, 81

卯 39년생 실수한다면 커다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51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6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75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처세만 잘 한다면 좋은 일이 줄을 이을 것이다. 99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7, 90

辰 40년생 인간적인 관계 설정과 교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 52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64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76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88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돌 뿐이다. 00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91

巳 41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면밀하게 판단하라. 53년생 안목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65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7년생 막연하다면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89년생 여태까지 준비해 왔던 바의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01년생 결코 형식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0, 78

午 42년생 직접 나서지 않고 측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도 괜찮다. 54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악재가 보이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66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78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리라. 90년생 모순점을 배제하라. 02년생 듣고 참고만 하자. 행운의 숫자 : 47, 94

未 43년생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니 참으로 가관이로다. 55년생 과신하다 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67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발설하거나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79년생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91년생 효과가 커진다. 03년생 평소에 마음먹었던 바를 실행하게 되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39, 57

申 44년생 선행 조건부터 확실히 짚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56년생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겠다. 68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80년생 애매하다면 흉하니 흑백은 확실히 가리는 것이 낫다. 92년생 한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하자. 04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행운의 숫자 : 14, 93

酉 45년생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볼 일이다. 57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69년생 내면의 실속뿐만 아니라 형식과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81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제대도 되어 가리라. 93년생 묻혀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05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5, 59

戌 46년생 취득하느냐 상실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58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진다. 70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82년생 가지치기를 잘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94년생 희망적인 동세이니 가히 기대해 볼 만하느니라. 06년생 한번 놓친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84

亥 47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59년생 기존의 판세를 역류시킬 만한 결정적인 타개책이 보인다. 71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게 된다. 83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95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다. 07년생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행운의 숫자 : 22, 99